

民主福祉 국가의 건설

㉑

社会改革으로 精神風土 刷新

국민적인 관심 아래 추진되어 온 国保委의 社会改革 作業은 權力型 부조리 척결, 공무원 숙청, 過熱 課外 추방 등 과단성있는 시책들이 발표됨으로써 차차 뿌리를 내려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京畿 지방을 필두로 해서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社会改革 및 净化작업의 앞으로의 방향을 설명해 주십시오.

80年代의 새 時代에는 국민 모두가 납득하고 同感할 수 있는 社会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러자면 그동안 積滯된 모든 不条理를 일소하고 국민들에게 違和感을 심어 온 社会秩序를 改革해야 합니다.

건국 30여년 동안 이 사회에는 여러가지 非理와 不正이 도처에 쌓였습니다. 특히 우리 經濟의 急成長기간 중 여러 고질적 不条理가 副産物로 생겨났습니다.

이른바 權力型不正蓄財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요. 權座에 오르면 그 자리를 利用, 수십억 내지 수백억원의 財産을 모으는 非理를 서슴없이 저지름 때 국민들은 어떻게 그것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社会紀綱이 무너지고 국민의 一体感이 저해되었던 것입니다. 不正과 非違가 毒버섯처럼 社会 道處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不条理와 腐敗를 그대로 放置하고는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内部의 違和와 葛藤으로 인해 국가의 기본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나라를 건설하는 각오로 이 모든 非理를 芟除하기 위한 일대 社会改革을 단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특정 政派나 특정階層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 아닙니다. 社会正義가 구현되는 깨끗한 社会를 이룩하기 위한 것입니다.

公職者社会에서 불붙은 净化작업이 社会各界로 번지고 있는 것은 이 社会改革에 국민 各界의 呼応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社会改革은 일시의 劇的인 조치나

운동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꾸준히 전개되어 国民들의 意識構造 자체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精神風土가 刷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도 이 改革과 净化작업을 앞으로 계속할 것이며 모든 國民이 一体感을 갖는 새 時代의 倫理的 基盤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 經濟成長 확신

우리 經濟는 과거 석유파동등으로 어려운 고비를 겪어 왔습니다만 특히 10·26事態 후 國家權力의 증추가 무너져 社会不安까지 조성되면서부터 더욱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經濟를 건설해서 복지국가를 건설해야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만 앞으로의 우리나라 經濟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우리 經濟에는 지금 많은 문제가 있다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 問題, 不況문제, 國際收支문제 등 매우 심각한 課題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게다가 국제경제 환경도 날로 악화되고 있어서 우리의 經濟문제를 더욱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原油價상승은 우리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겨주고 있으며, 世界不況과 각국의 輸入規制는 우리의 輸出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적으로 인플레이와 不況을 同時에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經濟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단시일 안에 다시 힘찬 成長軌道에 進入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韓國經濟의 힘을 '알 잡아보거나 韓國國民의 能力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經濟가 그동안 성장해 온 것은 결코 국제환경이나 우리의 조건이 좋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그에 대한 代價로 얻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졌는지 우리 국민과 기업인들은 모두가 自省해 볼 필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커다란反省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이켜 볼 때 우리나라의 飛躍的인 經濟成長은 政治安定과 社會安定의 前提條件에 의한 產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經濟成長이 되면 그것이 政治安定과 社會安定에 기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政治安定과 社會安定의 보장 없이는 經濟가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의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의 經濟발전 경험에 가르쳐 주고 있는 真理인 것입니다.

경제성장을 누리고 있는 나라, 經濟安定을 누리고 있는 나라 처놓고 政治·社會安定이 보장되지 않은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0·26사태를 고비로 政治安定이 무너지자 社會不安을 가져왔고 그것이 經濟不況의 악순환을 加重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政治·社會의 不安에 의한 經濟不安은 이제 해소될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러한 不安要因이 再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政治安定기반을 굳건히 함으로써 經濟의 비약적 成長을 持續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歷史的 觀點에서 우리 經濟가 계속 成長段階에 있으며 先進經濟로의 成熟段階에 접근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經濟는 80년대에 또 한번의 飛躍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비약은 곧 우리 經濟의 先進國圈에의 진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消極的이고 悲觀的인 생각, 그리고 每事를 否定的으로 보는 思考方式은 떨쳐 버려야 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經濟의 未來에 대해 確信을 갖고 현재의 歷史的 挑戰에 國民 전체가 단결하여 노력하는 姿勢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80년대의 우리 經濟를 새로운 段階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로운 構想과 새로운 劃期的 計劃을 세워 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民主福祉國家의 建設이란 목표에 符合되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맹목적 批判은 國家의 沈沒 재촉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새로운 歷史 창조

의 단계에 있어서는 누구나 同參해야 하며 특히 지식인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새 時代 새 歷史를 창조하는 이 시점에서 言論人, 文化人, 學者들의 역할이 어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言論人을 비롯한 知識人들은 국가 사회를 지탱하는 支柱의 하나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知識人들의 沒知覺한 비판행위가 國論分裂의 큰 요인이 되어 왔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不純한 政治目的을 가지고 反國家的 政治人과 結탁했던 일부 知識人들은 此際에 책임을 느끼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社會의 病理현상에 대한 비판은 知識人들의 주요 機能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비판은 어디까지나 국가적현실에 바탕을 둔 건설적인 것이어야지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파괴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日帝植民統治下에 있을 때 우리 知識人들의 抵抗과 비판활동은 異民族의 지배체제를 終息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獨立主權국가로 형성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의 知識人들의 비판활동은 그 성격이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國民的 團結과 社會安定의 큰 테두리 안에서 보다 나은 發展을 위한 비판이어야지 國論을 分裂시키거나 體制 자체를 否認하는 反國家的인 것이 되어서는 國民들이 容納할 수 없을 것입니다.

越南은 우리에게 좋은 教訓을 주지 않았습니까? 學生, 宗敎人, 言論人들이 國籍을 상실한 盲目的 비판으로 치달을 때 결국 국가의 沈沒을 재촉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共產治下에서 무슨 비판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虛點만을 노려 호시탐탐하고 있는 北韓共產集團의 위협 아래 있는 우리의 實情이 결코 越南과 동떨어진 상황이라고 安心할 수 없습니다.

나라와 民族이 健在할 때 知識人도 存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 知識人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歷史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 달라라는 점입니다. 우리 民族은 近代史의 전환기에 國權을 빼앗겨 近代國家를 樹立할 기회를 상실했던 것입니다.

그후 우리는 植民地 36년을 보냈고 解放 후 建國을 했으나 名目上의 독립이었을 뿐이고 名實相符한

民主國家의 건설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남이 한 世紀를 통해 이룩하게 되는 近代國家의 建設이 우리의 경우 30여년간의 짧은 기간에 완성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知識人들도 역사적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여 民主國家건설에 同參해야 할 것이며 祖國에 대한 批判만을 일삼는 태도는 止揚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 부 말씀

오랜 시간 동안 國家가 나아가야 할 方向과 당면

한 과제들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救國의 大役事가 추진되고 있고, 또 이를 主導하고 계시는 全장군께서 이 기회에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 機會를 통하여 國民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 救國課業이 이 나라 이 民族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認識하시고 萬一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 民族은 또다시 混亂과 無秩序 속에서 惡循環만을 反復하게 된다는 것을 切實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부, 「民主福祉國家의 건설」에서〉

科學토픽



海洋調査船「半月號」就航

沿岸海域의 科學的인 綜合海洋調査와 海洋資料 情報蒐集을 목적으로 建造된 海洋調査船인 「半月號」가 9월30일 仁川沿岸埠頭에서 준공식을 가짐으로써 이제 우리나라도 本格的인 海양 개발시대의 서막을 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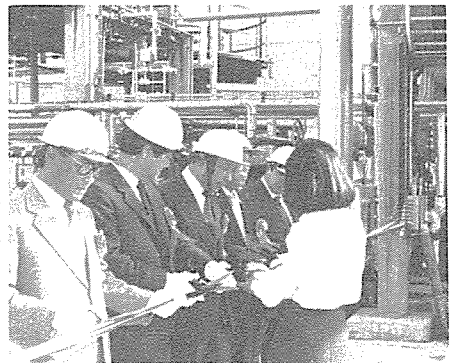
韓國科學技術研究所 부설 海洋開發研究所 (소장: 李秉喆)가 지난 79년10월 內資 2억2백만원과 外資 2억원을 들여 仁川造船所에 의뢰하여 만든 이 「半月號」는 길이 21m, 넓이 5.8m, 깊이 3.2m에 총83t級으로 航統距離는 1,500海里 최대속도 12노트이며 500馬力の 엔진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最初의 軟性洗劑原料工場인 梨樹化學蔚山工場 竣工式이 지난 9월26일 蔚山현지에서 全民濟社長을 비롯한 내외 貴賓이 參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梨樹化學, 軟性洗劑工場竣工

78년, 내외자 65億원을 들여 2년만에 완공한 이공장은 年間 軟性알칼벤젠 20,000톤을 생산, 國內수요를 攄당하고도 7,000여톤이 남을 규모이며 1,100만달러의 輸入代替효과도 기대된다.

運轉, 蒸溜塔을 비롯한 反應塔 등의 設計 및 製作등 一切가 國內기술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특히 高溫(500℃)에서의 水素개스와 80T의 弗化水素酸을 攄급하는 국제규모의 石油化學工場을 淸정한 우리 기술로 완성했다는 점에서 國內 석유화학 기술수준의 발전상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이工場은 設計에서 試